



김제시가 8일 2층 상황실에서 지평선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대승과 F&S에너지(주)와 백구농공단지에서 투자하는 (주)평강BIM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의 메카, 김제 힘찬 도약

김제시, 대승·F&S에너지·평강BIM 투자협약 체결... 75명 고용 창출

김제시는 8일 2층 상황실에서 지평선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대승과 F&S에너지(주)와 백구농공단지에서 투자하는 (주)평강BIM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나인권 도의원, 황영석 도의원, 온주현 시장, 고미정 행정지원위원장, 박두기 의원과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주)대승은 지난 2000년부터 서흥농공단지에서 2공장을 두고 김제와 인연을 맺었고 (주)일강과 대승정밀(주)와 그룹사이며 3개사의 연매출은 3,245억원으로 대부분의 매출은 김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 기업으로, 지평선산업단지내 5공장에 증설하여 247억을 투자하고 신규로 2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F&S에너지(주)는 수상 태양광 구조체를 생산하는 회사로 지평선산업단지 80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채용 예정으로 투자협약과 함께 9,916.8㎡ (약 3,000평) 분양계약도 체결했다.

또한 익산 산기농공단지에서 본사를 두고 렉카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주)평강BIM은 백구농공단지에서 52억을 투자하여 신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분양계약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은 81.6%로 지속되는 경제 위기속에서도 꾸준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주)대승의 김두곤 부사장은 "김제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제2의 고향으로 본사 이전까지 검토중이다. 앞으로 (주)대승이 김제시 대표 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F&S에너지(주) 구정완 대표는 "F&S에너지(주)는 세만금을 보고 김제로 투

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김제시와 협력하여 태양광 사업 선두주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평강BIM 최길호 대표는 "이미 김제시는 특장차 산업의 중심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으며 대단지로 확장될 것이다"고 확신한다. 김제에 추가 투자를 결정한 만큼 시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일반산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대승과 F&S에너지(주) 그리고 백구농공단지에서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평강BIM 대표이사들을 비롯한 임직원께 감사드리며, 3사 모두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김제시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100년 전 임시정부를 만나보세요"

LX, 광화문광장에서 상해임시정부 VR체험 부스 운영

서울 한복판에서 100년 전 상해임시정부와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가 국민 곁을 찾아온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외 부총리)와 한 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화)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오는 11일부터 열흘 간 광화문광장에

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상해임시정부를 만나볼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LX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융합해 100년 전 상해임시정부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동시에 백범 김구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과거로부터 소환해 국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이를 참여하는 당시지는 임시정부의 자금조달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백범과 함께 사진 찍기, 안중근 의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LX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해 현지 임시정부청사를 직접 찾아가 3차원(3D) 정밀측량과 함께 모델링작업을 추진해왔다.

최창화 사장은 "체험부스를 방문하는 많은 국민과 외국인인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진영 행안장관 '단출한' 취임식... "시대적 사명 완수"

강원도 산불 여파에 내부직원과 조출히 처리 '국민안전·지방분권·정부혁신' 3대과제 지목 '세종 이진'에 대면 회의 최소화·유연근무 약속



진영 행안장관 취임식이 8일 국민안전·지방분권·정부혁신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갔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첫 업무였던 강원 산불 대응을 들며 최우선 과제로 '국민안전'을 꼽았다.

진 장관은 "첫 임무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재난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 재난의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 무시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는 '예방중심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자"고 독려했다.

진 장관은 취임식 전 강원 산불 수습 현장에서 김부겸 전 장관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후 8일 0시 임기 개시 즉시 현장 지휘에 나섰다.

이임식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김

부겸 전 장관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새 정부 출범후 초대 장관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산불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다 임무를 마친 김 전 장관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직무로 봤다.

진 장관은 "지방분권을 단순한 권한 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 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사람과 산업의 물줄기가 지방으로 흐르게 하겠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제도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서비스, 국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가 우리의 지향점이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 ▲깨끗하고 전문성 있는 공무 수행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통합·공정성의 세 가지 공직자 윤리를 강조했다.

진 장관은 노자의 '직이불사 광이 불요(直而不肆 光而不耀·곧으나 너무 뻣대지 않고, 빛나나 눈 부시게 하지는 않는다)'란 말을 인용해 "자부심을 갖고 담담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어느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길로 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세종 이전으로 인한 잦은 서울출장과 가족과의 강제 별거로 힘겨워하는 직원들을 위해 대면 회의 최소화와 유연근무 활성화에 더 관심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장·차관·실장 직무실과 각 부서가 떨어져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제 직무실뿐 아니라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구내 식당에서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강원도민의 아픔 함께... 재난 피해지역에 온정 보낸다

전북도, 2천만원·인력·장비 지원

전북도는 강원도 대형 산불 화재 피해지역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2000만원을 강원도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화재진압 현장에 소방인력과 장비를 긴급 지원한데 이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해 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4일 화재발생 시 우리도 소방인력 44명과 장비 22대 등을 화재현장에 긴급 투입해 화재정리 및 급수지원 활동을 벌인바 있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 산불이 국가적 재난사태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낸 만큼 이재민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송하진 도지사가 주말사이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전북은 최근 타시·도의 재난에 두 차례 현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강원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지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 등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대형 공사장 '안전 뒷전'... 규정위반 무더기 적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한 대형 공사장이 소방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벌여 163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전국 대형공사장 2769

곳 중 연면적 3만㎡ 이상이거나 소방시설 상주 감리자가 지정된 141곳을 표본으로 정해 실시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입건된 중대 위반 사항은 9건이다. 허위로 감리 일지를 작성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겨 '소방시설공사법'을 어긴 곳들이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도 포함돼 있다. 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취급의 부주의, 소방공사 상주감리원·기술자 미배치, 착공(변경) 신고태만, 임시저장시설 미승인 등이 발각된 경우다.

소화기도 없이 가연물을 방치한 채용점 작업을 하는 공사장도 상당수 있었다. 48건은 시정 명령, 78건은 현장 즉시시정 하도록 조치했다. /뉴시스